

:: 동행하는 삶 ::

:: 빛이 되리라::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이!

지난여름, 5년 만에 기도원 집회에 참석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첫날 저녁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응답을 해주셨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기도 제목이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것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었다. 성도들 잘 먹이고 지내게 하시려고 노력하신 목사님과 기도원분들의 노력이 너무나 느껴졌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자 여행지를 자주 찾아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그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도 말끔히 해결되었다. 기도원으로 오면 된다. 기도원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우선 내 영혼을 살지게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고, 내 육을 건강하게 하는 맛있는 식사가 제공된다. 식사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끼니마다 고기반찬이 있다. 게다가 은혜 카페에서 식사시간마다 제공되는 커피와 다양한 음료들. 이 모든 것이 무료이다. 이런 곳이

어디에 또 있을까? 게다가 우리 집에는 5살, 11살 아이들이 있는데 기도원 호텔 세미나실에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하루에 세 번 드리는 예배를 더욱 집중력 있게 드릴 수 있다.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이 해결되니 정말 그야말로 기도원은 천국이다. 기도원에 3박 4일간 머물면서 남편과 계속 이야기했다. 정말 감사하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기도원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는 수동으로 작동되는 구식 총을 가지고 있었다. 적들을 향해 총을 쏘는데 총알이 맞지 않고 튕겨 나왔다. 기도하며 총을 계속 쏘는데 옆을 보니 레이저빔이 나오는 커다란 총이 있어 그 총을 들고 총을 쏘았다. 그 총으로 적들을 맞추니 레이저에 닿는 적들마다 백발백중 모두 맞았다. 꿈을 깬 후 기분이 너무 좋았다. 수동식 총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신식 총으로 레벨업됐고 뭔가 나의 영적인 부분이 레벨업된 기분이었다.

기도원에 가기 전 하나의 기도 제목이 기도의 줄을 너무 잡고 싶은 것이다.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청장년부 중보기도팀에도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수시로 방언기도를 하곤 했지만 부족했다. 기도원에 다녀온 후 기도를 하면 기도가 너무 잘 되는 느낌을 받았다. 기도원에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시키셨고, 그 가운데 기도의 줄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 기도가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계속 기도가 하고 싶었다. 수시로 방언기도를 하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에게 저녁을 챙겨주면서 방언기도를 하니 아이가 “엄마 뭐해요?” 하길래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을 잃지 않으려면 수시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말하니 밥을 먹던 아이도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 기도하다가 서로 마주 보며 웃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감사하고 귀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참 좋고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멈출 수 없는 물고기

상어는 다른 어류와 다르게 부레가 없다. 부레는 일종의 공기주머니다. 몸속에 부레가 있음으로써 물고기가 물에 쉽게 뜨고 수심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상어는 부레가 없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다. 물에 뜨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상어는 계속 헤엄을 쳐야 한다.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물고기이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헤엄치지 않으면 결국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악한 것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때론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잠시 수면 밑바닥으로 가라앉을 때가 있어도 결국은 다시 헤엄쳐 올라와야 한다. 기도하기 힘들어도, 말씀 묵상이 어려워도, 전도하기가 부담돼도, 직분 감당하기가 두려워도 해야 한다. 그게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멈추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고여 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말이다. 생기 있게 파닥 파닥 뛰는 물고기처럼 우리 영혼도 소망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하루하루 전진해야 한다. 세상에 편한 길이 많지만, 오히려 좁은 길을 찾아가는 우리 삶이 되려 노력하자. 세상의 부귀영화에 잠시 눈이 가더라도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시선을 돌려 애쓰자. 나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 하나 없고 오직 나보다 예수에 더 미친 사람만이 부럽다는 목사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보자.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 짧은 이야기 ::

여유 있는 삶

집회 차 이초석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깜깜한 하늘을 보며 “미국 달은 찌그러졌구먼.” 하셨습니다. 아마 그믐달쯤 된 달을 보셨나 봅니다. 그러자

뒤따라 나오던 미국에 사는 성도님 한 분이 얼른 이렇게 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미국 달도 조금만 있으면 둥그레져요.” 그래서 일행들 모두가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웃으며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전쟁하듯, 싸움터에 나가듯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고, 어제보다 오늘 이 나은 삶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

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얼굴에 내 천자(川) 대신 웃음을 띠고 말입니다. 웃어야 복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웃어야 젊어지고, 웃어야 행복이 오고 사랑이 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웃으며 삽시다. 목젓이 보이도록 소리 내어 웃기도 하고, 눈물이 나도록, 배꼽이 빠지도록 웃으며 살아봅시다. 웃음이 없는 인생은 기름없는 램프와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소리내어 웃어봅시다.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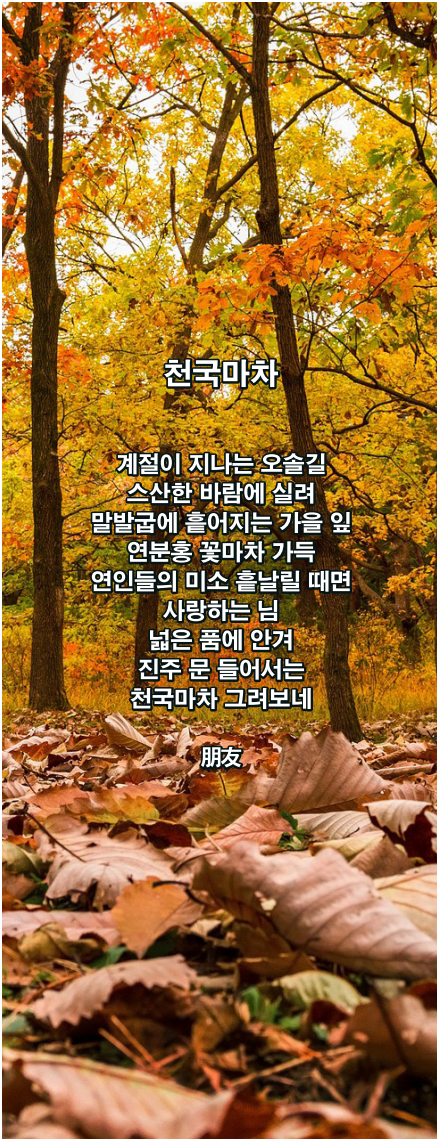
마음과 몸이 우울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우울증은 슬프고 불안하거나 분노, 초조함, 무관심과 같은 마음이 2주 이상 진행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정신질환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우울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정신적인 영향뿐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은 신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우울증은 마음이 슬프고, 공허하고, 희망이 없고, 죄책감을 느끼며, 밤에 머리가 안정되지 않아서 불면증이 잘 생기는데, 이는 마음을 편하게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지적으로는 물건을 기억하고 판단하거나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심장병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아이들 중에

는 이유 없이 등교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몸무게의 변화가 크게 있는 경우, 과식하거나 식욕이 지나치게 줄게 됩니다. 혈관도 경직되어 심혈관질환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통증에 대한 과민도를 높여 만성 통증을 호소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 만성피로를 유발합니다. 신체의 면역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우울증은 심장에 열이 많은 경우, 심장이 허약해진 경우, 간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경우로 나뉘는데, 심장에 열이 많으면 잠들기에 힘이 들고, 구내염, 식도염, 위장병, 피부병 등이 잘 생기며, 심장이 허약해져 저혈압, 어지럼증, 기력저하, 의욕저하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간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감

정 기복이 잦고, 쉽게 짜증 내고, 변비나 설사가 잦으며 별것도 아닌 것에 과민함을 보입니다. 우울할수록 활동을 싫어하고 대인관계를 피하게 되며 독서와 같은 정신활동을 회피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며 성경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고 건강한 채식과 영양을 보충하는 음식을 먹어야 우울증으로부터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향부자차, 복령차, 치자차, 인진쑤차 등도 우울증에 사용하는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우울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은 우울증을 이겨내는 최고의 보약 중 하나입니다.

Dr. 설재현 집사



천국마차

계절이 지나는 오솔길
스산한 바람에 실려
말발굽에 흩어지는 가을 잎
연분홍 꽃마차 가득
연인들의 미소 흩날릴 때면
사랑하는 님
넓은 품에 안겨
진주 문 들어서는
천국마차 그려보네

朋友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10월 30일 (제1173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조언(助言)

‘나에게 조언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실 때 깨달으라.’

최근 내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낸 잠언이다.

조언(助言)이란 한자를 보면 도울 조(助), 말씀 언(言)이다. 곧 상대를 깨우쳐줄, 도와줄 말을 뜻한다.

나는 조언을 많이 해준다. 제자들이나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잘되라고, 아프지 말라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깨우침을 준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것을 잔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웬 간섭이냐?’ 하는 얼굴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는 말하지 않는다. 왜냐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잠9:8)는 말씀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같다. 백성들이 그의 부친 솔로몬이 행한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에 대해 르호보암에게 불만을 토로하자 그는 고민한다. 그때 솔로몬과 함께 일했던 노인들이 조언한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것이 잔소리로 들렸다(왕상12:8). 대신 아첨하는 자기 또래 소년들의 말에 따랐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나라가 두 조각나는 사태에 이르고 만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는니라”(잠10:17).

지금은 연로하신 박용선 장로님이 내게 따끔하게 조언해주신 일이 있다. 설교하면서 자주 주머니에 손을 넣는 습관을 가진 나에게, “목사님, 강패입니까? 왜 자주 설교시간에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는 것이다. 나는 즉시 모든 바지의 주머니를 꿰매버렸다. 그 후로 그 습관을 버렸다.

나에게, 우리에게는 조언자가 계신다. 성령님이시다.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 길은 아닙니다.’ 하시며 세세하게 알려주신다. 성산동의 부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도 ‘지금 네가 계획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다. 큰 화를 자초한다.’라고 성령이 조언해주셨다. 나는 바로 내 생각을 접었다. 조언해줄 분이 옆에 있음을 감사하자.

사랑하는 스승을 떠나보내며

“목회초기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당시 교계의 거목이신 어느 목사님과 함께 잠을 자는데 북풍한설이 몰아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쥔 꿈에서는 다른 어느 목사님과 함께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지 단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후자(後者) 목사님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노선을 좇아 그분처럼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길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자주 간증하신 내용이다. 목사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등불이었고, 큰 스승이셨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은 내게 용기와 힘을 주셨고, 지혜로 나를 이끌어주셨습니다. 교회가 9개월 만에 깨졌을 때 그분은 내 손을 잡으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믿을 건 예수밖에 없어.’라고 위로해주셨으며, ‘이 목사, 절대 교만하면 안 돼,’라고도 조언해주셨습니다. 내가 모함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환난 날에는 피하는 것이 지혜야.’라고 꿈에 찾아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

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이 교회는 예전보다 갑절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방해하는 자들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자고로 세상에는 세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휘방하는 자, 수수방관하는 자, 목숨을 다해 돕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



김기동 성락교회 원로감독 하관예배에 설교하시는 목사님(2022년 10월 25일 베뢰아아카데미하우스)

님을 끌어안고 잤던 그분, 목사님이 유일하게 스승 삼아 섬긴 그분은 평생 성락교회를 섬긴 김기동 목사님이시다. 그분이 10월 22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다.

비보를 접한 목사님은 침통한 마음으로 고인이 안치된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하셨고, 25일 거행된 발인환송예배에는 서울 및 인천교회 목회자들과 뜻있는 장로들을 대동하고 참석하셨다. 환송예배는 숙연한 분위기가운데 진행되었다.

삼봉리 베뢰아아카데미하우스에서 거행된 하관예배는 성락교회 요청으로 총회장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다.

“김기동 목사님은 사도요, 선지자요, 교수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분이셨고, 정직

합니다. 여러분이 초청하지 않았어도 나는 장지까지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먹고, 그분의 말씀으로 성장한 성도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취도 은혜를 알아야 하건만 어찌 자기 목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본시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잠언에도 거듭 의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목사님과의 의리를 생각한다면 이 교회를 위해 죽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끼리 대동단결한다면 누구도 이 교회를 해칠 수 없습니다. 제2의 부흥이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에 설교자로 세우신 까닭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김기동 목사님의 탄식으로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분

에 적극적으로 휘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그의 일을 휘방하실 것이고, 수수방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나 몰라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돕는 자들은 하나님도 천사를 보내사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실 겁니까?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담임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주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낳고 기르고 사랑한 김기동 목사님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부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는 다시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의 외침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또한 제2의 부흥을 여는 불씨가 되기를 기도한다.

신묘수 전도사

2022 추계산상집회 11월 28일(월)~12월 1일(목)

장소: 장성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8:27)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6:3).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창1:1),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창1:27). 또한 그분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인지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눅18:27).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롬4:17)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삼상2:6~7).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며, 만물이 다 그분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깊은 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롬11:33~36). 또한 그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찌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찌라도 거기 계시니이다”(시139:7~8). 더욱이 그분은 우리의 속내까지 속속히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높은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시139:1~3). 이 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고(막8), 병어리가 말하게게 하셨으며 (마9), 귀머거리가 듣게 하셨습니다(막7). 또 하나님은 죽은 자나 흠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고(요11), 90이 되어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아들을 낳게 하셨고(창21:2), 바다를 갈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강을 건너게도 하셨습니다(출14:22). 어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필설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에스겔을 마른 뼈가 널브러진 골짜

기로 이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겔37:3). 이는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끼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겔37:4~6)

하십니다. 에스겔이 그대 마른 뼈

들이 이 뼈와 저 뼈가 불기 시작했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불고 가죽이 덮이고, 그 위에 생기마져 돌게 되어 일어나 군대가 되었습니다(겔37:7~10).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겔37:13).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고 하였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고도 말씀하셨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고 말한 것은 그분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외집회에 나가면,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뭘 믿고 이렇게 큰소리를 칠까요? 제기간이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견 되고, 저견 안 되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면 먼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소경 바디매오처럼 말입니다. 선천적으로, 그것도 2대째 내림으로 소경이 어찌

눈을 뜨겠습니까만, 바디매오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습니다.

바디매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알아채자 목청을 돋우고 예수를 불렀습니다. 주위에서는 안 된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바디매오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인 눈을 뗐습니다(막10).

에스더가 자기 백성을 살릴 길은 왕 앞에 나가 하만의 모함을 아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비라고 언제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혹 나갔다가 왕이 금함을 내밀지 않으면 되레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갔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반색을 하며 그녀를 맞아 주었고,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둔 네 명의 친구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여 친구를 살리는 일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예수

님을 둘러싼 무리가 많아 도저히 들 것엔 누워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자 그들은 지붕을 뚫고 들것을 달아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칭하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주셨습니다.

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의 쥐꼬리만한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지식 안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견고한 진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뿐입니다(고후10:4~5).

두 번째,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마리아는 너무 당황하고 놀라 ‘나는 남자를 모른다’고 하자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눅1:37)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1:38)라며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문둥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스톱되었을 겁니다. 다행히 계집종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려 순종하니 고름이 줄줄 흐르던 피부가 말갭게 어린아이 같은 피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왕하5).

이론과 논리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도 순종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연회장에 내어가라는 예수님 말씀에 종들이 순종했기에 연회는 이어갈 수 있었고, 손님들은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요2).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우리가 팔자라고 단정하기에 우리 삶에 기적이 없는 겁니다. 한계는 우리가 긋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또한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미칩니다.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절실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기도에는 능력이 따른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된 충격과 체험이 생생하다. 게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에, 앞으로도 오직 만사형통만 있을 것을 기대해 온 것도 사실이다. 즉 우리 손에는 지금 하나님의 전능함이 통째로 쥐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그 전능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데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곧 우리 영혼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잘 되는 데에 쓰라는 것이다(마6:33).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영역을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도우시지는 않는다. 예수께서 어떤 소경을 고치셨다. 사람의 힘으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그러기에 주님이 직접 역사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눈에 바른 진흙을 씻는 수고는 네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심으로,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직접 해주신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직접 해야 한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사에 대하여는 감사를 해야 한다. 감사하다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도와주세요.” 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간구하고, 간구하다가 막히면 또 간구하고, 막

히면 또 간구하며 전진하는 것이다.

엘리아의 일곱 번 간구는 하늘을 움직였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간구하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비가 오도록 간구하니 비가 왔다. 이처럼 기도는 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한 힘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 번이나 겹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하나님만의 고유한 권능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게을리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얻어보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거룩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소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역사하신다. 쓰라고 주신 물건을 쓰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중단된다. 성경의 경제원칙, 곧 하나님의 경제원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가장 적절히 쓰이게 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이미 하늘 창고에 준비되어 있으니 내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여 쓰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로 인해 제한받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신다.

신기류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크로노스’ vs. ‘카이로스’

사람의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가 있다. 크로노스는 시계나 달력에 나오는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는 영적 의미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지는 시간이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크로노스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지는 카이로스가 있다. 다윗에게는 세 번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첫 번째는 세상 베들레헴의 어린 심대 소년시절,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장차 왕이 될 것을 선포하여 기름 부어준 것이다. 이때는 하나님의 비전이 처음 씨앗이 되어서 뿌려졌을 때이다. 아직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그때 이미 시작되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사울이 죽고 10년이 넘는 다윗의 광야생활이 끝난 뒤,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그를 유대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이다.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한 7년 반의 중간 스테이션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은 사울 진영이 완전히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의 장로들까지 다 와서 다윗에게 항복함으로써 다윗이 이스라엘

과 유다 전체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뤄지는 것에는 과정이 있고 때가 있다.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정하신 때, 카이로스가 정확하게 이르렀을 때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뤄지나 방법과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도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않았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의 잔여 세력의 지도자들도 자신이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자연스럽게 붕괴되기를 기다렸다. 그 사이 악인들끼리 싸우고 대립하고 죽이는 어지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큰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러는 사이에 민심도 점점 다윗에게 옮겨왔고, 복잡했던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나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이뤄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정금 전도사

:: 오늘의 메시지 ::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라

서커스단의 뒷마당에 덩치 큰 코끼리가 조그만 말뚝에 묶어 놓은 밧줄에 매여 있다. 코끼리가 조금만 힘을 주면 금세 끊어질 밧줄인데도 코끼리는 꼼짝을 못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코끼리는 처음 사육될 때부터 두꺼운 쇠줄에 매여 있어서 힘을 주어도 줄을 끊을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죄와 절망과 실패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실패와 절망은 내가 끊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라는 쇠줄에 매여 꼼짝을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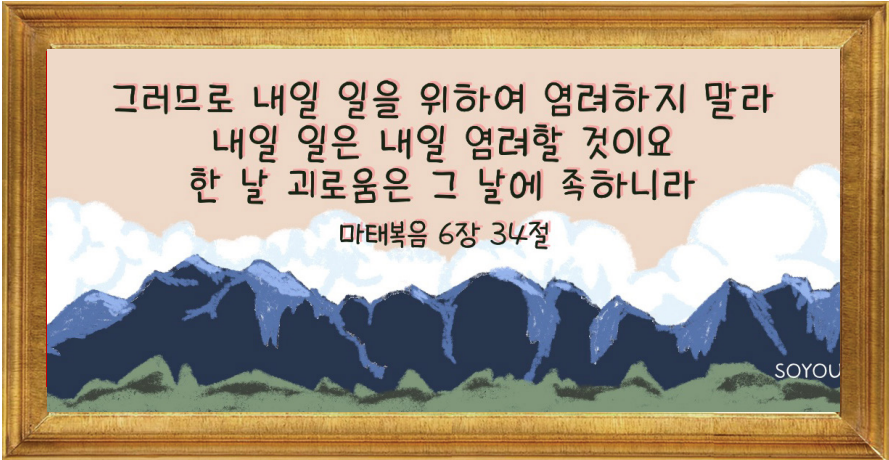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로 변화되었다. 구원과 축복의 핵심은 나의 신분이 무엇이라는 것이다. 주어진 신분에 의해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아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절대 요소이다.

성공자의 특징은 자신을 성공자로 생각하고, 실패자의 특징은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는 데 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승리와 성공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법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알아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속지 말라! 담대하라! 잃었던 신앙의 야성을 찾으라. 하나님 안에서 놀랍도록 변화된 자녀의 신분에 기대하며 당당함으로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김상욱 목사



:: 생명의 말씀 ::

영적 코어

축구 기술 중에 일명 ‘헛다리 짚기’라는 페인트모션 기술이 있다. 상대방 선수의 중심축을 무너뜨리기 위해 현란한 발동작으로 방향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그런 공을 막으려다 방향에 속아 중심을 잃는 순간 넘어진다. 몸의 중심의 문제다. 코어(core)란 ‘중심’이다. 우리 몸의 중심축을 이루는 허리과 복부 근육을 코어근육이라 한다. 코어근육이 튼튼해야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꾸준한 운동과 노력으로 단련해야만 한다.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영혼에도 코어근육이 필요하다. 늘 말쑥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에게는 균형 잡힌 영적 식단과 훈련이 요구된다. 특정 말쑥에 대한 편식과 확증편향성이 강화될수록 영양 불균형이 생겨난다. 영적 질병으로 몸살을 앓게 된다.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믿는 원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방식을 고수하기도 한다. 성경의 하나님이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상(像)을 만들어 믿으려 하기도 한다. 영적 코어가 무너진 거다.

마귀는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페인트 전략을 많이 쓴다. 구약의 변덕스

런 진노의 하나님은 구미에 안 맞기에 과감히 생략하라 한다. 신약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서 구원자가 될 수 없으니 윤리교사 정도로 여기라 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남은 삶은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된다 한다. 율법은 이미 폐기되었으니 육체적 방탕 정도야 구원에 큰 문제가 없다 한다. 유일한 계시인 성경 66권을 벗어나 실상으로 성취된 계시가 진짜 계시라 한다. 성경의 언약시대는 이미 지났고 새언약, 새이름을 가진 특정한 사람을 통해야만 구원이 있다 한다. 이 모두 다 우리를 속이는 영적 페인트모션 기술들이다. 예수라는 중심축에서 벗어나 넘어지게 하는 전략들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헛다리 짚기로 우리 신앙의 중심축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주전공이다. 너무나 능숙하기에 영적 코어를 단련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고 중심축이 무너지게 된다. 영적 코어는 예수를 중심으로 주어진 성경의 핵심진리들이다. 이를 마음 중심에 두고 굳건히 붙잡아야 넘어지지 않는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송치화 목사